

黃帶下의 原因·症狀·治法·治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

梁海元 · 柳同烈*

I. 緒 論

黃帶下는 婦人 帶下의 一種으로 婦女의 陰道에서 排出되는 一種의 黃色 粘液으로, 稠粘하고 淋離不斷하며, 間或 若干의 腥臭가 나는 것을 말한다.¹⁾

黃帶下에 對하여 巢²⁾는 諸病源候論에서 “帶下黃候”로써 처음 言及하였고, 陳⁹⁾은 “色黃者屬脾”, “傷足太陰脾經 黃如爛瓜”, 傅³⁾는 傅青主女科에서 “黃帶下”, 現代에 와서 出版된 中醫婦科學^{13,19)}에서는 “黃帶”라고 表現하기도 하였다.

黃帶下의 原因으로 巢²⁾는 衝任脈의 虛損으로 보았고, 傅^{3,2,4-8)}은 任脈之濕熱, 陳^{9,10-13)}은 脾氣虛弱, 脾臟損傷 또는 脾之濕熱등으로, 唐¹⁵⁾은 帶脈의 損傷에 起因한다고 表現하였다.

黃帶下의 主要證狀은 帶下의 色이 黃茶濃汁과 같은 黃色이고 그 氣臭가 腥穢하며^{3,4,6,8,13)}, 境遇에 따라서는 外陰瘙痒, 或有刺痛感, 少腹墜痛, 小便覺熱¹⁾, 精神疲弱, 形體消瘦, 胃納如常⁴⁾ 등의 症狀들도 隋伴된다.

黃帶下의 治法으로 傅³⁾는 任脈之濕熱인 境遇에 “補任脈之虛, 而清腎火之炎”이라 하였고, 程¹³⁾은 脾虛有濕인 境遇에 “健脾之濁帶”라 하였으며, 唐¹⁵⁾은 “若脾土失其沖和 不能制水 帶脈受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學教室

傷 注於胞中 因發帶證”의 境遇에 “治脾卽治帶 治帶卽治水也”라 하여 “和脾而利水”라 하였다.

帶下에 대한 實驗的 研究로는 梁 등²³⁾의 “婦人前陰病과 帶下에 應用되는 艾葉의 抗菌作用에 關한 實驗的 研究”, 鄭²⁴⁾의 “側柏樗皮丸煎湯液이 實驗動物의 鎮痛消炎 및 抗菌效果에 미치는 影響” 등이 있고, 文獻的 研究로는 柳²⁵⁾의 “帶下誘發原因의 文獻的 考察” 등 一部 있었으나, 黃帶下에 대한 研究는 未洽한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古代로 부터 現代에 이르는 歷代文獻中에서 黃帶下와 關聯된 內容을 考察 整理하여 보았으며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資料調查 및 研究方法

1). 資料調查

韓醫學의 歷代 文獻中에서 諸病源候論에서부터 最近의 東洋醫學叢書中醫婦科學에 이르기 까지 約 22餘種의 文獻을 選定하여 黃帶下에 關한 部分을 拔萃하여 이를 研究 對象으로 삼았다.

2). 研究方法

- (1). 黃帶下의 原因을 文獻調查 整理하였다.
- (2). 黃帶下의 症狀을 文獻調查 整理하였다.
- (3). 黃帶下의 治法을 文獻調查 整理하였다.
- (4). 黃帶下에 使用된 處方을 文獻調查 整理하였다.
- (5). (1),(2),(3),(4)에서 얻어진 資料들 中에서 重複되는 內容은 重複되는 대로 整理하였다.

2. 文獻調查

1) 諸病原候論²⁾

帶下黃候

勞傷血氣，損動衝脈，任脈。衝任之脈皆起于胞內，爲經脈之海。手太陽小腸之經也，手少陰心之經也，此二經主下爲月水，若經脈傷損，衝任氣虛，不能約制經血，則血如穢液相兼而成帶下。然五臟皆稟血氣，其色則隨臟不同，脾臟之色黃，帶下黃者，是脾臟虛損，故帶下而挾黃色。

2) 婦人良方大全⁹⁾

婦人帶下 其名有五 因經行產後 風邪入胞門 傳於臟腑而致之 若傷足厥陰肝經 色如青泥 傷手少陰心經 色如紅津 傷手太陰肺經 形如白涕 傷足太陰脾經 黃如爛瓜 傷足少陰腎經 黑如衄血 人有帶脈 橫於腰間 如速帶之狀 病生於此 故名爲帶。

色青者屬肝 用小柴胡加山梔防風 濕熱壅滯 小便赤澀 用龍膽瀉肝湯 肝血不足 或燥熱風熱 用六味丸 色赤者屬心 用小柴胡加黃連山梔當歸 思慮過傷 用妙香散等藥 色白者屬肺 用補中益氣加山梔 色黃者屬脾 用六君子加山梔柴胡不應用歸脾湯 色黑者屬腎 用六味丸 ……。

3) 萬病回春¹⁹⁾

婦人赤白帶下者 皆因月經不調 房勞過度 或產後血虛 胃中濕痰流下 滲入膀胱 而帶下腰酸 頭暈眼花 小腹脹痛 四肢無力 困倦而虛 用八物湯加減 吞下止帶丸 肥人多痰 有帶症 瘦人多火 亦有之 帶與夢遺同法。

4) 景岳全書¹⁴⁾

立齋曰 ……若色青者屬肝 用小柴胡加山梔 或濕熱壅滯 小便赤澀 龍膽瀉肝湯 色白者屬心 用小柴胡加黃連山梔當歸 思慮過傷 用妙香散等藥 色白者屬肺 用補中益氣加山梔 色黃者屬脾 用六君子加山梔柴胡 不應歸脾湯 色黑者屬腎 用六味地黃丸。

5) 六科準繩²²⁾

良：婦人帶下 其名有五 因經行產後 風邪入胞門 傳於臟腑而致之 若傷足厥陰肝經 色如青泥 傷手少陰心經 色如紅津 傷手太陰肺經 形如白涕 傷足太陰脾經 黃如爛瓜 傷足少陰腎經 黑如衄血 人有帶脈 橫於腰間 如速帶之狀 病生於此 故名爲帶。

薛：……色青者屬肝 用小柴胡加山梔防風 濕熱壅滯 小便赤澀 用龍膽瀉肝湯 肝血不足 或燥熱風熱 用六味丸 色赤者屬心 用小柴胡加黃連山梔當歸 思慮過傷 用妙香散等藥 色白者屬肺 用補中益氣加山梔 色黃者屬脾 用六君子加山梔柴胡不應用歸脾湯 色黑者屬腎 用六味丸 ……。

6) 傅青主 女科³⁾

黃帶下

婦人有帶下，而色黃者，宛如黃茶濃汁，其氣腥穢，所謂黃帶是也，夫黃帶，乃任脈之濕熱也。任脈本不能容水，濕氣安得而入，而化爲黃帶乎？

不知帶脈橫生，通于任脈，任脈直上，走於脣齒。脣齒之間，原於不斷之泉，不貫於任脈以化精，使任脈無熱氣之繞，則口中之津液，盡化爲精，以入於腎矣。惟有熱邪存於下焦之間，則津液不能化精，而反化濕也。夫濕者，土之氣，寒水之侵；熱者，化之氣，寒木之生，水色，本黑；化色，本紅，今濕與熱合，欲化紅而不能；欲返黑而不得，煎熬成汁，因變爲黃色矣。此乃不從水化之化，而從濕化也。所以世之人，有以黃帶爲脾之濕熱，單去治脾，而不能痊者，是不知真水真火合成丹邪元邪，繞於任脈胞胎之間，而化此黃色也。單治脾，何能痊乎？

法宜補任脈之虛，而清腎火之炎，則庶幾矣。

方用〈易黃湯〉：山藥〈炒一兩〉 芡實〈一兩炒〉 黃柏〈鹽水炒一錢〉 車前子〈酒炒一錢〉 白菓〈碎十枚〉 水煎，連服四劑，無不立愈。

此不獨治黃帶方也。凡有帶病者，均可治之，而治帶之黃者，功更奇也。蓋山藥 芡實，專補任脈之虛，又能利水。如白菓引入任脈之中，更爲便捷，所以奏功之速也。至於用黃柏，清腎中之火也腎與任脈，相通以相濟，解腎中之火，即解任脈之熱矣。

7) 辨證奇聞全書⁶⁾

〈辨證論治四〉 婦人有帶下而色黃者，宛如黃茶濃汁，其氣帶腥，人以爲脾經之濕熱也，誰知是任脈之濕熱乎，夫任脈本不能容水，如何濕氣入於中而化爲黃帶乎，不知帶脈橫生，通於任脈，任脈直上，走於脣齒，脣齒之間原有不斷之泉，下灌於任脈，使任脈無熱，則口中津液，盡化爲精，以入於腎中矣，惟有熱以存於下焦之間，則津不化精而化濕，夫水色白而火紅色，今濕與熱合，欲變紅而不能，欲返白而不得，煎熬成汁，因變爲黃色矣，黃乃土之色也，真水真火，合而成丹，邪水邪火，合而帶黃，世人以黃帶爲脾之濕熱，而單去治脾，此黃帶之所以難也。

〈臨床處方〉 方用：退黃湯治之 - 山藥 一兩 芡實 一兩 黃柏 二錢 車前子 一錢 白菓 十枚。

〈藥理說明〉 水煎服，連用四劑，無不全愈，此方不特治黃帶之方也，凡有白帶者，俱可治之，而治黃帶，尤奏奇功，蓋山藥芡寔，專補任脈之虛，而又能利水，加之白菓引入任脈之中，更爲便捷所以奏功甚速也，至所用黃柏，即解任脈之濕熱矣。

8) 濟陰綱目¹¹⁾

良方云 婦人帶下 其名有五 因經行產後 風邪入胞門 傳於臟腑而致之 若傷足厥陰肝經 色如青泥 傷手少陰心經 色如紅津 傷手太陰肺經 形如白涕 傷足太陰脾經 黃如爛瓜 傷足少陰腎經 黑如鮮血 人有帶脈 橫於腰間 如帶之狀 病生於此 故名爲帶。

薛氏曰 …… 色青者屬肝 用小柴胡加山梔防風 濕熱壅滯 小便赤澀 用龍膽瀉肝湯 肝血不足 或

燥熱風熱 用六味丸 色赤者屬心 用小柴胡加黃連山梔當歸 思慮過傷 用妙香散等藥 色白者屬肺 用補中益氣加山梔 色黃者屬脾 用六君子加山梔柴胡不應用歸脾湯 色黑者屬腎 用六味丸……

一婦人帶下黃白 怒則胸膈不利 飲食小思 或用消導利氣之藥 痰喘胸滿 大便下血 予曰 此因脾氣虧損 不能攝血歸源 用補中益氣加茯苓半夏炮姜 四劑頓減 又用八珍加柴胡山梔而

9) 醫學心悟¹³⁾

帶下之症，方書以青黃赤白黑，分屬五臟，各立藥方，其實不必拘泥。大抵此證，不外脾虛有濕。脾氣壯旺則飲食之精華，生氣血而不生帶。脾氣虛弱，則五味之實秀，生帶而不生氣血。南方地土卑濕，人稟常弱，故濁帶之證，十人有九。予以五味異功散加扁豆，苡仁，山藥之類，投之輒效。尚挾五色，則加本臟藥一二味足矣。夫帶症似屬尋常，若崩而不止，多至髓竭骨枯而成損。治此者，寧可忽諸？

五味異功散 <見虛勞>

健脾止濁帶。前症若專下白色，屬肺，倍用苡仁。若兼赤色，屬心，加丹參，當歸。若兼青色，屬肝，加柴胡，山梔。若兼黃色，屬脾，加石斛，荷葉，陳米。若兼黑色，屬腎，加杜沖，續斷。若脈數有熱，加炒黃柏，蓮子心。若脈遲厥冷，加黑姜，大棗。

10) 醫宗金鑑⁷⁾

帶下勞傷衝與任 邪入胞中五色分 青肝黃脾白主肺 衄血黑腎赤屬心 隨入五臟兼濕化 治從補瀉燥寒溫 更審瘡膿瘀血化 隨別胞膀胱濁與淫。

<注>帶下者 由于勞傷衝任 風邪入于胞中 血受其邪 隨人臟氣濕熱 濕寒所化。故色青者屬肝 爲風濕；色赤屬心 爲熱濕；色黃屬脾 爲虛濕；色白屬肺 爲清濕；色黑屬腎 爲寒濕也。其從補 從瀉 從燥 從澀 從寒 從溫 則隨證治之。更審其帶久淋瀝之物 或臭或腥穢 乃敗血所化 是胞中病也；若似瘡膿 則非瘀血所化 是乃癰膿也。若如米泔 兼尿澀不利 乃膀胱白濁病也；若尿澀通利 從精竅出 或如膠粘 乃胞中白淫病也。

邪入胞中吳茱萸 赤粘連梔青防梔 白主益氣黑六味 黃淡六君或歸脾。

<注>帶下因六淫之邪入于胞中者 宜吳茱萸湯。若色赤 色黃而濁粘者 熱也。色黃者 加黃連 梔子；色青者 加防風 梔子。若色白 色黑而清稀者 虛寒也。色白者 用補中益氣湯；色黑者 用六味地黃湯；色黃而淡者 宜六君子湯 或加味歸脾湯 分證調治可也。

11) 血證論¹⁵⁾

婦人面色青黃 肢體消瘦 心戰腰酸 時下濁物 其物黃赤青白 黑并下 是帶脈之血 傷損而成 故名曰帶證 古法又分白濁一條 爲帶下是帶脈爲病 其色汙雜 白濁則 是心脾腎 三經爲病 其色純白 而所用之方 仍相彷彿 其實同一病也 皆是帶脈爲病 吾爲指明曰 白濁五帶 所下似血非血 乃胞中之

水也 此水清則爲天癸 以濟經血 前論詳矣 此水獨則爲白濁 爲五帶 水濁而血因以濁矣 蓋帶脈下繫胞宮 中束人 身居身之中央 屬於脾經 脾經土氣沖和 則帶脈 寧潔 而胞中之水清和 是以行經三日後 卽有胞水 黃明如金 是腎中天癸之水 得帶脈脾土之制 而見黃濁之色 乃種子之候 無病之月信也 若脾土失其沖和 不能制水 帶脈受傷 注於胞中 因發帶證 白濁汗雜 治宜和脾以利水 治脾卽是治帶 治帶卽治水也 觀腎着湯 用白朮治腰痛 如帶五千錢者 腎着名湯 明言是腎中水邪 着於帶脈 故從脾治之 以土治水 而帶脈自愈矣 卽此可知女子帶證 是水不清 濁證仍是水不清 不必強分 總以和脾利水爲主 胃苓湯主之 挾熱者去桂枝 加黃芩黃連黃栢 夾寒者 加細辛吳茱 夫脾土鬱蒸 濕氣腐化 變生五帶 赤白汗濁 理脾解鬱 宜逍遙散 加防己木通主之 熱加丹皮梔子黃栢 寒加台烏藥艾葉 砂仁 以上所論雖未盡帶濁之治 然已得法門 學者推而廣之 遇熱證則硝黃甘遂 未必非宜 遇寒證則參朮芪附 尤所必用 以及寒熱錯雜 皆可隨證制方 有紙筆不能盡傳者 在醫師之自悟也。

12) 萬病醫藥顧問⁴⁾

- <病原> 1 任脈中有濕熱 帶脈橫生，通於任脈，任脈直上，走於脣齒，脣齒間原有不斷之泉，下貫任脈以化精，惟任脈有熱氣之憂，則華池之津液，不能化精，而反化濕，煎熬成汁，變而爲黃，時時帶下，是謂黃帶下病。
- 2 脾氣虛弱 其人脾氣虛弱，下陷而成帶，色黃，是謂黃帶下病。
- <病狀> 1 帶下如黃茶 黃帶下病由任脈中有濕熱者，其證帶下色黃，宛如黃茶膿汁，其氣腥穢
- 2 精神疲弱 黃帶下病由脾氣虛弱而成者，其證時下黃帶，精神疲弱形體消瘦，胃納如常
- <辨證> 帶下如注 黃帶下病失治，帶下益多如注，精神疲弱，形體消削，腰酸如折，此脾陽下陷，正氣衰微，殊爲危重。
- <療法> 1 帶下如黃茶之療法 黃帶下病由任脈中有濕熱者，其證帶下色黃，宛如黃茶膿汁，其氣腥穢，宜服易黃湯，實者梔連清熱湯主之。
- 2 精神疲弱之療法 黃帶下病由脾氣虛弱而成者，其證時下黃帶，精神疲弱，形體消瘦，胃納如常，宜服六君子湯，或加味歸脾湯。
- 3 帶下如注之療法 黃帶下病失治，帶下益多如注，精神疲弱，形體消削，腰酸如折，此脾陽下陷，正氣衰微，殊爲危重，宜服升陽大補湯。
- <調養> 1 忌食油貳 黃帶下病忌食生冷水果，油貳，辛辣香燥，煎炒炙爆，鷄鵝羊肉，蝦蟹海腥等物。

2 宜補脾氣 黃帶下病愈後, 宜補脾氣, 使易復元, 當常服四君子湯.

3 不可坐臥濕地 黃帶下病患者宜居高爽之所, 忌處卑濕之地, 則濕氣不侵, 病易痊也.

13) 中醫症狀鑑別診斷學¹⁾

<概念> 婦女陰道中排出一種黃色粘液, 稠粘而淋漓不斷, 間或微有腥臭, 稱爲黃帶.

<鑑別>

常見症候

濕熱黃帶: 代下量多, 色黃綠如膿, 有臭氣, 外陰瘙癢, 或有刺痛感, 每逢經期症狀加重; 或代下稠粘如膿, 有穢臭氣, 小腹墜痛, 小便覺熱舌苔薄黃, 舌質紅或正常, 脈搏濡數.

氣虛黃帶: 黃帶日久不止, 量多而稀薄, 色淺黃無臭氣, 月經週期不准, 經期多延長, 腰酸腿軟食慾不振, 面部及下肢或見浮腫, 舌苔薄白脈虛緩.

鑑別分析

濕熱黃帶與氣虛黃帶: 濕熱黃帶, 多緣脾濕下洲, 郁久化熱, 濕熱蘊結任脈, 或感染病蟲, 蟲蝕陰中所致; 氣虛黃帶則因黃帶日久不愈, 脾氣益虛而引起. 其辨症要點爲: 濕熱黃帶, 帶下色深, 質稠氣臭, 兼有小腹墜痛或陰道刺痛, 小便覺熱, 苔黃, 脈數等; 而氣虛黃帶則帶下色淺, 質稀無臭, 并兼有腰酸腿軟, 納小浮腫等症狀. 濕熱黃帶治在清熱利濕, 排膿止帶, 方用加味排膿湯, 如外陰瘙癢加白鮮皮, 鬼箭羽, 兼用蛇床子散煎水熏洗陰部; 氣虛黃帶治在補脾益氣升陽止帶, 方用補中益氣湯加山茶萸.

14) 韓方婦人科學⁵⁾

帶下라 함은 '從帶脈而下' 의 뜻으로 女性 性器의 分泌物을 總稱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말하는 帶下는 이 性器分泌物이 增加하여 腔口外까지 流出되어 外陰部 또는 그 附近을 濕潤 또는 汚染하는 狀態를 指稱한다. 그러므로 帶下는 生理的인 帶下와 病的인 帶下로 區分할 수 있다.

<病理> …… 黃帶下 - 脾濕이 任脈에 注下하여 濕邪가 旺盛하면 華池의 津液이 精液으로 化하지 못하고 도리어 濕水로 變하여 帶下를 이룬다.

<症狀> …… 黃帶下 - 黃帶下가 經過하면 茶汁樣의 腥穢한 流出物을 排出한다. 脈象은 濡數 또는 緩弱하다.

<治療> …… 黃帶下는 脾虛證을 나타내는 일이 많으므로 香砂六君子湯類의 方劑에 黃柏, 車前子등을 加하여 用하고, ……

黃帶下 - 易黃湯으로 任脈을 補하고 腎火를 清한다(傳青).

15) 診療要鑑¹⁰⁾

肝氣가 傷하면 帶下證의 分泌物의 色이 靑泥色을 呈하고, 心氣가 傷하면 紅色이 되며, 肺氣가 傷하면 鼻涕와 같은 白色이 되고, 脾氣가 傷하면 爛瓜와 같은 黃色이 되며, 腎氣가 傷하면 衄血과 같은 黑色을 呈하게 된다.

五色帶下證에는 解毒四物湯 胃風湯을 쓰되, 手足이 冷하며 腰腹이 冷痛하는데는 五積散에서 麻黃을 去하고, 五靈脂炒 荊芥穗炒를 加해 쓴다.

16) 病症診治²⁰⁾

診斷 : 帶下가 黃色 또는 赤色이고 끈적끈적하며 비린내가 나는 것은 대개 實證과 熱證에 屬한다. 색깔이 黃色이거나 赤 白色이 섞여있으며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며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는 濕熱下注에 屬하고, 색깔이 靑色이며 심하면 綠豆汁 같기도 하고 비린내가 나는 경우는 憂思傷肝 때문이며, 색깔이 붉어서 似血非血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경우는 肝經濕熱이 된다.

陰炎

辨證論治 濕熱下注 帶下の 量이 많고 진득진득하다. 淡黃色이거나 고름 콧물과 같은 黃綠色을 띤다. …… 清熱利濕 止帶方

子宮類管炎

診斷要點 帶下の 量이 많고 색깔이 고름과 같은 黃色이며, …… 帶下가 黃色이고 粘性 또는 粘膿性을 띠며, 量이 많을 때는 外陰部를 자극하여 가려움증과 外陰炎을 일으키기도 한다.

辨證論治 濕熱下注-帶下の 色이 누렇게 콧물이나 고름과 같으며 …… 清熱利濕-解毒止痒 止帶方과 大連翹飲을 合用한다. 寒瘀留滯-帶下가 진득진득하고 덩어리져 있다, 색깔이 누르고 血色과 같은 붉은 빛이 든다 …… 祛瘀溫經 疏滯止痛 少腹逐瘀湯

骨盤腔炎

辨證論治 熱毒壅盛 帶下の 量이 많고 색깔이 누렇게 진득진득하며 더러운 냄새가 난다. …… 清熱解毒 消腫祛濕 黃連解毒湯과 大黃牡丹皮湯을 合用한다.

瘀毒壅結 帶下가 누르고 진득진득하며 더러운 냄새가 난다. 清熱解毒 破瘀散結 紅藤煎과 仙方活命散을 合用한다.

濕熱瘀結 항상 低熱이 起伏한다. 帶下の 量이 많고 黃色 또는 赤色이며 더러운 냄새가 난다.

…… 清熱利濕 活血化瘀 止帶方과 大黃牡丹皮湯을 合用한다.

17) 漢方 婦人科 臨床診療²¹⁾

帶下の 症狀은 반드시 腰酸하므로 內經에 帶脈如帶하여 橫連於腰라 하였으며, 病源을 따라 病名을 帶下라고 하였다. 古人들이 말한 五色帶下에서 赤帶下, 黑帶下는 崩漏의 一種으로 異常月經에 屬하고, 青帶下, 黃帶下는 稠粘腥臭하고 小便이 不利하므로 淋濁에 屬하며, 眞正한 帶下는 白色으로 臭氣가 없다.……心火가 不安하여 胸中氣亂하고 心煩懊惱하며 不眠驚悸하고 帶下黃赤하면 朱砂安神丸, 直指固精丸, 秘元煎, 人參丸, 茯菟丸, 妙香散, 歸脾湯등을 쓰고,……

18) 中醫 婦科學¹⁸⁾

黃帶: 帶下量多或不甚多, 色黃, 質稠或清稀, 或穢臭. 窺陰檢查或見子宮頸充血或糜爛, 陰道壁充血, 或未見異常

陰虛挾濕型: 帶下量多或不甚多, 色淡黃, 質清或粘, 有臭, 舌紅苔小, 脈細數

濕熱型: 帶下量多, 色黃, 質粘稠, 穢臭, 苔黃膩, 脈濡數

19) 中醫婦科學¹²⁾

<辨證論治>

帶下辨證, 首先在于辨別量, 色, 質, 氣味. 一般來說, 色深(黃, 赤, 青綠), 質粘稠, 有臭穢者, 多屬實, 屬熱; 色淡(淡白, 淡黃), 質稀或有腥氣者, 多屬虛, 屬寒.

脾虛 帶下色白或淡黃, 質粘稠, 無臭氣, 綿綿不斷, 面色白或萎黃, 四肢不溫, 精神疲倦 納小便溇, 兩足浮腫, 舌淡苔白或膩, 脈緩弱

- 健脾益氣, 升陽除濕 - 完帶湯, 易黃湯

濕熱 帶下量多, 色黃或黃白, 質粘膩, 有臭氣, 胸悶口膩, 納食較差, 或少腹作痛, 或帶下色白質粘如豆腐渣狀, 陰痒等, 小便黃少, 舌苔黃膩或厚, 脈濡略數

- 清熱利濕 - 止帶方, 龍膽瀉肝湯

20) 病源辭典⁸⁾

黃帶

病源: 由任脈中有濕熱所致

病狀: 帶下色黃, 宛如黃茶濃汁

治法: 宜補任脈之虛而清腎家之熱, 宜枸杞菟絲烏賊骨桑螺蛸白蠟之屬, 若由於脾虛者, 用六君子

湯加山梔柴胡山藥芡實蓮鬚之屬 …….

21) 漢方臨床學¹⁷⁾

옛말에 婦女는 十人중에 九帶란 말이 있고, 王士雄은 여성의 子宮內에 一種의 液體排出은 정상적인 內分泌이지만, 만약 過度하게 分泌되면 이것은 一種의 病的狀態로 본다고 하였다. 대개 白色, 黃色, 赤色 또는 黃色과 赤色이 混合된 帶下로 구분한다.

藥物療法 退帶湯을 應用하는것이 效果的이다.

黃色帶下證에는 退黃湯이 效果가 있는 處方이다.

22) 東醫臨床要覽¹⁶⁾

婦女子의 陰道內에는 平時에도 恒常少量의 白色또는 淡黃色的 分泌物이 있어서 溫度의 表面을 濕潤하게 해주고 있다.

特別한 理由도 없는데 陰道分泌物에 正常보다 많고 或은 色質 氣味등에 變化가 發生하는 境遇는 病理現象으로서 이것을 帶下病이라 한다. 帶下의 原因은 大概 濕熱에 起因하며 辨證은 色 氣 臭 清 濁에 重點을 둔다. 무릇 色이 희고 清稀한 것은 대개 虛證 寒證이며 色이 노랗거나 或은 붉고 粘稠하며 穢臭가 있는 것은 대개 實證 熱證이다. 治法은 健脾升陽除濕을 爲主로하며, 疏肝固腎 清熱利濕도 配酌한다.

濕熱型: 帶下의 色이 黃하며 質은 粘稠하고 氣臭穢하며 陰道가 가렵고 間或紅腫痒痛하며 小便이 잦으면서 排尿時에 痛症이 있고 倦怠煩熱한다. 脈濡數 苔白微黃膩 治法은 清熱祛濕 治方은 加味二陳湯 易黃湯 止帶方

III. 總括 및 考察

黃帶下는 婦女에게서 發生하는 病的 帶下의 一種으로 볼 수 있는데, 陰道에서 排出되는 分泌物이 色은 黃色 또는 淡黃色이면서 粘稠하고 臭穢한 것을 말하고, 심한 境遇는 색깔이 茶汁과 같은 濃黃色을 띠는데, 그 原因은 任脈中の 濕熱鬱滯 또는 脾臟損傷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脾氣虛弱, 脾之濕熱등인데 主로 濕熱에 起因한 것으로 보고있다.

現代醫學에서의 膇炎, 子宮頸管炎, 骨盤腔炎등 大概 트리코모나스性 陰道炎에서 分泌物이

黃色으로 排出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黃帶下의 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思慮된다.

巢²⁾는 諸病源候論帶下黃候에서 “勞傷血氣 損動衝脈 任脈 …… 脾臟之色黃 帶下黃者 是脾臟虛損 故帶下而挾黃色”이라 하여 黃帶下에 對하여 처음으로 言及하였으며, 그 原因이 衝任脈의 虛損에 起因한다고 하였다.

傅³⁾는 “夫黃帶, 乃任脈之濕熱也. 任脈本不能容水, 濕氣安得而入, 而化爲黃帶乎”라고 하여 黃帶下의 原因이 任脈의 濕熱 때문이라고 表現하였으며, 中醫婦科學¹⁸⁾에서는 陰虛挾濕型과 濕熱型으로 分類하였고, 陳 등^{7,9,11,14)}은 “婦人帶下 其名有五 因經行產後 …… 風邪入胞門 傳於入臟腑而致之…… 傷足太陰脾經 黃如爛瓜 ……”라 하여 外感에 依해 脾臟이 損傷을 받아 脾土之色인 黃色으로 帶下가 排出되는 것으로 보아 五色帶下가 五臟과 그 五行配屬에 따른 五色과 關係된다고 하였다.

또 唐¹⁵⁾은 “蓋帶脈下繫胞宮 中夾人 身居身之中央 屬於脾經 …… 若脾土失氣沖和 不能制水 帶脈受傷 注於胞中 因發帶證”이라 하여 黃帶下가 帶脈의 損傷에 起因한다고 하였으며, 程¹³⁾은 “…… 大抵此證, 不外脾虛有濕. 脾氣壯旺則飲食之精華, 生氣血而不生帶. 脾氣虛弱, 則五味之實秀, 生帶而不生氣血. 南方地土卑濕, 人稟常弱, 故濁帶之證, 十人有九 ……”라 하여 黃帶下의 原因을 脾虛濕熱로 보았다. 特히 傅³⁾, 錢⁶⁾ 등은 “人以爲脾經之濕熱也, 誰知是任脈之濕熱乎, 夫任脈本不能容水, 如何濕氣入於中而化爲黃帶乎”라고 하여 脾虛濕熱은 任脈의 濕熱에 依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表現하고 있어 脾虛濕熱보다는 任脈의 濕熱이 보다 根本的인 原因이 된다고 主張하는 特異한 面이 보인다.

또한 武¹¹⁾, 王²²⁾ 등은 “婦人帶下 其名有五 因經行產後 風邪入胞門 傳於臟腑而致之 若傷足厥陰肝經 色如青泥 傷手少陰心經 色如紅津 傷手太陰肺經 形如白涕 傷足太陰脾經 黃如爛瓜 傷足少陰腎經 黑如衄血 人有帶脈 橫於腰間 如速帶之狀 病生於此 故名爲帶”라는 陳⁹⁾의 主張을 그대로 받아들여 黃帶下를 說明하고 있다.

以上の 原因을 綜合해보면 黃帶下는 任脈의 濕熱이나, 또는 外感 風邪등에 依하여 脾經이나 脾臟이 損傷을 받으면 黃色의 帶下가 排出되는 것으로 思慮된다.

黃帶下의 症狀에 있어서 巢²⁾는 “帶下而挾黃色”이라 하였고, 陳 등^{9,10,11,14,22)}은 “色黃者屬脾, 傷足太陰脾經 黃如爛瓜”, 傅 등^{3,4,6,8)}은 “帶下而色黃者 宛如黃茶濃汁 其氣腥穢”, 唐¹⁵⁾은 “黃明如金”, “黃潤之色”이라 하였다. 또한 中醫婦科學¹⁸⁾에서는 黃帶下의 一般的인 症狀에 對하여 “帶下量多或不甚多, 色黃, 質稠或清稀, 或穢臭. 窺陰檢查或見子宮頸充血或糜爛, 陰道壁充血, 或未見異常”이라 하였으며, 黃帶下의 症狀을 두 類型으로 分類하여 陰虛挾濕型은 “帶下量多或不甚多, 色淡黃, 質清或粘, 有臭, 舌紅苔小, 脈細數”, 濕熱型은 “帶下量多, 色黃, 質粘稠, 穢臭, 苔

黃膩, 脈濡數"이라 하였다. 宋⁵⁾은 "黃帶下가 經過하면 茶汁樣의 腥穢한 流出物을 排出한다. 脈象은 濡數 또는 緩弱하다."라 하여 傅^{3,4,6,8)}과 類似한 表現을 하였다. 最近에 와서 黃帶下의 症狀에 帶下의 色이 黃白, 黃赤, 黃綠, 淡黃, 深黃 그리고 黃青綠色^{20,21)}을 呈하는 境遇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黃帶下의 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思慮된다.

以上の 症狀들을 綜合해 보면 黃帶下의 症狀은 帶下의 色이 黃色 或은 黃白, 黃赤, 黃綠, 淡黃, 深黃, 黃青綠 등으로 나타나면서, 氣臭가 腥穢하며, 脈濡數或 緩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巢²⁾가 帶下를 五色에 依해 分類하여 說明한 以來 傅³⁾, 陳⁶⁾ 등은 五臟 및 그 所屬 經絡의 損傷에 依하여 發現되는 五行上의 五色으로 帶下를 俱分하였는데, 龔^{19,26,27,28,29)}은 帶下를 主로 赤, 白, 赤白 등으로만 說明하고 있어 各家의 觀點과 治療方法이 各기 各樣을 알 수 있는데, 後者는 氣와 血의 概念으로 分類한 것으로 思慮되며 黃帶下를 비롯한 五色의 帶下를 包括하는 것으로 보인다.

黃帶下의 治法과 治方을 살펴보면 陳^{9,11,14,22)}은 脾와 脾經의 損傷에 主眼點을 두어 六君子湯, 歸脾湯을 사용하였고, 傅^{3,5,6,8)}은 原因을 任脈之濕熱로 보고 "法宜補任脈之虛, 而清腎火之炎"이라 하여 易黃湯, 退黃湯을, 程¹³⁾은 原因을 脾虛濕熱로 보고 健脾之濁帶의 治法을 써서 五味異功散을, 唐¹⁵⁾은 原因을 帶脈의 濕熱로 보았는데 和脾以利水의 治法을 써서 胃苓湯을, 萬病醫藥顧問⁴⁾에서는 任脈의 濕熱에는 易黃湯, 脾氣虛弱에는 六君子湯 或 歸脾湯, 脾陽下陷에는 升陽大補湯을 使用하였다. 中醫症狀鑑別診斷學¹¹⁾에서는 濕熱黃帶에 清熱利濕 排膿止帶하는 加味排膿湯을 使用하였고, 氣虛黃帶에는 補脾益氣升陽止帶하는 補中益氣湯加山茱萸를 使用하였다. 中醫婦科學¹²⁾에서는 脾虛黃帶에 健脾益氣升陽除濕하는 完帶湯, 易黃湯을 使用하였고, 濕熱黃帶에는 清熱利濕하는 止帶方, 龍膽瀉肝湯을 使用하였다. 申²⁰⁾은 現代醫學的 病名으로 分類하고 各各에 對하여 辨證論治를 提示하였는데, 膈炎에 있어서는 濕熱下注로 因한 境遇에 清熱利濕하는 止帶方을 使用하였고, 子宮頸管炎에 있어서는 濕熱下注의 境遇에는 清熱利濕 解毒止痒하는 止帶方合大連翹飲을, 寒瘀溜滯의 境遇에는 祛瘀溫經 疏滯止痛하는 少腹逐瘀湯을 使用하였고, 骨盤腔炎에 있어서는 瘀毒壅結의 境遇에는 清熱解毒 破瘀散結하는 紅藤煎合仙方活命散을, 濕熱瘀結의 境遇에는 清熱利濕 活血化瘀하는 止帶方合大黃牡丹皮湯을 使用하였다.

黃帶下의 治法과 治方을 整理해보면 任脈之濕熱인 境遇는 補任脈之虛 清腎火之炎이고, 脾經濕熱인 境遇는 補脾益氣, 健脾益氣, 利水등이고 濕熱인 境遇에는 清熱利濕이고 그 外에 清熱解毒, 活血化瘀등도 黃帶下의 治法으로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으로 思慮된다.

黃帶下에 應用된 處方으로는 모두 32餘種으로 易黃湯 또는 退黃湯, 六君子湯, 歸脾湯, 止帶

方등이 多用되었으며, 補中益氣湯과 五積散등이 應用되었다.

任脈之濕熱인 境遇에는 主로 易黃湯, 退黃湯이 使用되었으며, 脾氣虛弱, 脾經濕熱등에는 六君子湯이 主로 使用되며 六君子湯이 不應하면 歸脾湯이 次方으로 使用되었다.

특히 傳 등^{3,4,5,12,16}이 應用한 易黃湯과 陳 등^{6,17}이 應用한 退黃湯은 處方 內容을 보면 易黃湯은 山藥<炒一兩> 芡實<一兩炒> 黃柏<鹽水炒一錢> 車前子<酒炒一錢> 白朮<碎十枚>으로 構成되어 있고, 退黃湯은 山藥一兩 芡實一兩 黃柏二錢 車前子一錢 白果十枚으로 構成되어 있어 두 處方이 서로 類似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結 論

黃帶下에 關하여 文獻의 으로 考察하여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黃帶下는 帶下黃候, 黃帶, 黃帶下등으로 命名되었다.
2. 黃帶下의 原因은 크게 任脈中濕熱, 脾經濕熱등 濕熱에 起因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그 外에 帶脈損傷, 脾氣虛弱, 陰虛濕熱, 瘀毒壅結등도 黃帶下의 重要한 原因이 된다.
3. 黃帶下의 症狀은 帶下의 色이 黃色 或은 黃白, 黃赤, 黃綠, 淡黃, 深黃, 黃青綠등으로 나타나면서, 氣臭가 腥穢하며, 脈濡數或 緩弱한것이라 할 수 있다.
4. 黃帶下의 治法은 任脈之濕熱인 境遇는 補任脈之虛 清腎火之炎, 脾經濕熱인 境遇는 補脾益氣, 健脾益氣, 利水등 濕熱인 境遇에는 清熱利濕이고 그 外에 清熱解毒, 活血化瘀등도 黃帶下의 治法으로 重要한 役割을 한다.
5. 黃帶下에 使用된 處方으로 易黃湯, 退黃湯, 六君子湯, 歸脾湯등이 多用되었다.
6. 任脈中濕熱로 因한 黃帶下에는 易黃湯, 退黃湯등이 多用되었으며, 脾經濕熱, 脾氣虛弱등으로 因한 黃帶下에는 六君子湯, 歸脾湯등이 多用되었다.

參 考 文 獻

1. 中醫研究院：中醫症狀鑑別診斷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pp.358 - 359, 1987.
2. 巢元方：諸病源候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1058, 1982
3. 傅青主：傅青主男女科，서울，大星文化社，pp.82 - 83, 1984.
4. 陸青節：萬病醫藥順門·第3種·婦人科，臺北，大中國圖書公司，p.39, 1965.
5. 宋炳基：漢方婦人科學，서울，杏林出版，p.233, p.234, p.237, 1978.
6. 錢鏡湖：辨證奇聞全書，臺北，甘地出版社，pp.411 - 412, 1980.
7. 吳謙：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서울，大星文化社，p.449, p.450, 1983.
8. 吳克替：病源辭典，萬岳出版社，p.762, 1975.
9. 陳自明：婦人良方大全·帶下論 第16, 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p.30, p.31
10. 金定濟：診療要鑑，서울，東洋醫學研究院，p.658, 1974
11. 武之望：濟陰綱目，서울，大城出版社，p.92, p.96, p.97,
12. 羅元愷：中醫婦科學，서울，知音出版社，p.168, p.170,
13. 程國彭：醫學心悟，香港，友聯出版社，p.234, p.235, 1961.
14. 張介賓：景岳全書，서울，大星文化社，p.50, 1988.
15. 唐宗海：血證論，臺北，力行書局有限公司，pp.107 - 108, 民國73.
16. 金定濟·金賢濟：東醫臨床要覽，부천，書苑堂，p.172, 1977.
17. 蔡仁植：漢方臨床學，서울，大星文化社，p.568, p.569, 1987.
18. 國際漢醫學學生會：東洋醫學叢書·中醫婦科學，서울，一中社，p.90, p.91, p.92, 1990.
19. 龔廷賢：萬病回春(卷下)，서울，癸丑文化社，p.183, 1977.
20. 申天浩：病症診治，서울，成輔社，p.553, p.554, p.557, p.559, p.560, p.563, 1990.
21. 李鐘華：漢方婦人科臨床診療，서울，癸丑文化社，p.194, p.196, 1982.
22. 王肯堂：六科準繩(女科)，서울，翰成社，p.118, p.119, 1982.
23. 梁秀烈·李京燮·宋炳基：婦人前陰病과 帶下에 應用되는 艾葉의 抗菌作用에 關한 實驗的 研究，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pp.48 - 52, 1989.

24. 鄭鎮鴻 : 側柏樗皮丸煎湯液이 實驗動物의 鎮痛消炎 및 抗菌效果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 校 大學院, 1988.
25. 柳深根 : 帶下誘發原因의 文獻的 考察,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pp.27-32, 1989.
26. 張從政 : 儒門事親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pp.467-469, 1992.
27. 朱辰亨 : 丹溪心法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pp.470-471, 1992.
28. 李挺 :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465, 1989.
29. 周命新 :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pp.332-334,